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아이치현이 8월 6일에 발표한 긴급사태 선언은, 8월 24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치현은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이치현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필요할 때나 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 노약자, 임산부, 다른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 5명 이상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 환기되지 않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아 주세요. 또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주세요.
- 마스크 쓰기, 손을 자주 씻기, 알코올 등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기 등을 철저히 해주세요.
- 가게를 운영 중인 분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규칙을 따라주세요. 또 「안심/안전 선언 시설」 스티커를 가게에 붙여, 손님께서 당신의 가게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치현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님으로서 가게 등에 갈 때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게의 규칙을 철저히 지켜 주세요. (또, 가능한 한 아래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게에 가주세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게입니다.



○필요한 때나, 급할 때 이외에는, 도쿄 혹은 수도권 등 도쿄 근처의 현에 가지 말아주세요. 만약 가게 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외출할 때에는 그곳의 코로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조사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세요.